

4월엔 양림동으로 문화·예술투어 떠나요

2023양림골목비엔날레
빈집·점포 전시공간으로
전시·체험·아트마켓 다채



2023 양림골목비엔날레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73일간 개최된다. 양림미술관거리협업체체는 지난 2월 집행위원장 한희원(서양화가), 추진위원장 강신겸(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마을 리더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 18명을 위촉하고 전시 프로그램(기획전시, 오픈스튜디오)과 주민참여 프로그램(양림스푼윙크, 양림한평숲, 예술체험·도슨트투어), 기금마련을 위한 아트마켓, 네트워킹을 위한 아트샐롱 파티 등을 준비 중이다.

올해는 마을 축제와 미술 기획전시를 전문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이강하미술관 이선 큐레이터를 전시감독으로 선정했다. 전시는 '기후 위기 시대, 생명의 힘'을 주제로 열리며 최근 공개 모집을 통해 김경란·이부리·김설하·김지희·표인부 등 15명의 참여작가를 선정했다. 전시공간은 양림동 빈집과 빈 점포 7곳을 활용한다.

최순인, 이조흠, 한부철, 한희원 등 양림동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를 만나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도 열

린다.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아틀리에 등에서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4월 5일부터 약 열흘간 프리 오픈 기간을 가진다. 아트마켓은 오는 6월 25일까지 10년후그라운드에서 열린다.

양림골목비엔날레의 큰 특징은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호스트가 돼 방문객을 맞이한다는 점이다. 양림동 내 식당, 카페 등 상점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랜드세일 행사인 양림스푼윙크는 축제 기간 동안 두 번의 시즌(4월5일~16일, 5월19일~28일)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매장은 고객에게 10% 할인을 제공한다. 각 점포만의 시그니처 메뉴와 신메뉴도 맛볼수 있다.

'양림한평숲'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평숲조성가(가드너)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을 공유지 2~3개소에 시범 숲을 조성해 마을 내 한평숲을 확산해 나가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광주시 예술여행학교 출신 수료생들과 함께 예술체험 및 도슨트 투어도 선보인다. 이들은 양



양림미술관거리협업체체 추진위원들이 다음달 열리는 2023양림골목비엔날레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

림동 드로잉 투어, 초상화 체험, 커피박 공예체험 등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양림동에서 같은 시기에 펼쳐지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와 양림골목비엔날레를 연계해 관람객을 위한 코스로 구성됐다. 축제 전 기간 동안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된다. 예술체험과 도슨트 투어는 양림골목비엔날레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아트샐롱파티는 참가자 네트워킹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열린다. 지역 예술계와 국제 예술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행사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 양림 골목 무대를 다채롭게 채워갈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양림골목비엔날레 여행주민(후원자) 모집' 온라인 펀딩도 완료됐다. 해당 기금은 참여 작가의 작품활동 및 전시를 위해 사용된다. 추후 펀딩으로서 작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트마켓도 준비되고 있다. 양림골목비엔날레 아트마켓을 통해 작품을 구매하면 판매대금의 50%는 행사 운영을 위해 기부된다. 이외에도 광주 남구청, 광주관광재단 등 공공기관도 개별 프로그램 협력을 통해 축제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다. /이나라 기자

이지호 도립미술관장 '석남 이정성 미술이론가 상'

국제 네트워크 활용 예술발전

'석남 이정성 미술이론가상'의 제10회 수상자로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이 선정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석남 이정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제10회 본상 수상자로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사진)을 최종 결정했다.

본상을 수상한 이지호 관장은 지역 미술관의 운영을 체계화 하고,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 예술문화 확대에 크게 기여한 점, 해외 유명 작가 전시를 지방에서 선보임과 동시에 해외에서 한국 관련 전시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술 발전에 기여한 점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석남 이정성 미술이론가상'은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이자 국내 미술평론가 1세대인 석남 이정성 선생(1919~2009)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타계후 후학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제정된 상이다.

국내 미술상은 대부분 작가를 수상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에 반해 석남 이정성 미술이론가상은 근·현대 미술이론 연구자, 평론가를 비롯해 학예연구사(관), 미술교육가, 미술평론가, 미

술계 개척자 등 한국 미술이론과 현장에서 다양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시상한다.

이지호 관장은 이화여대 미술대학 서양화를 전공하고,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조형예술학(미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이응노미술관장,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대전시립미술관장을 역임했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인천시립박물관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시상식에서는 '이경성 선생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최열(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이은다(이경성 선생 딸)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우수 공립박물관 선정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한 전국 공립박물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박물관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래 3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기관으로 선

정되면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272곳의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심사해 최근 인증기관 140곳을 발표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100년 역사의 광주역

과 임동 방직공장을 광주만의 스토리로 엮은 기획전시와 지난해 12월 국가 지정 사적인 신장동 유적에 마한유적체험관을 개설해 사적의 의미를 널리 알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물관은 오는 31일 '2022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 결과 공유회'에서 서울역사박물관, 제주 4·3 평화 기념관 등 5개 기관과 함께 운영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이나라 기자

아시아 음식·인장·정원의 세계로

ACC 아시아문화예술교육 운영

밥, 빵, 인장(印章), 정원 등 아시아인의 일상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아시아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체험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예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ACC 아시아문화예술교육을 오는 30일부터 6월까지 ACC 문화교육실에서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아시아 여러 도시의 음식문화를 경험하는 'ACC 아시아문화예술체험'과 아시아 인장과 정원을 체험하는 'ACC 아시아특화교육' 등 2개 분야 4개 강좌를 진행한다.

'ACC 아시아문화예술체험'은 오는 4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첫째·셋째 수요일에 걸쳐 총 6회 교육한다. 아시아 여행 작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했다.

전남대 이기중 교수는 자신의 일본 여행 기록을 중심으로 '아시아 밥 로드'를 소개한다. 일본 밥 문화를 주제로 와쇼쿠(和食), 요쇼쿠(洋食), 벤토(便當) 등을 함께 나누면서 도시를 여행하며 느낀 일본 밥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줄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생의 호평을 받은 '아시아 빵 로드'는 올해 강의 시간을 저녁으로 옮겨 운영한다. 아시아 빵 여행 작가인 박미아·북혜원 강사가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겪은 일화를 들려준다. 아시아 도시의 문화를 반영한 특색 있는 빵의 세계로 수강생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ACC 아시아특화교육은 '아시아를 새기다'와 '동아시아 정원문화'를 주제로 아시아 문화와 가치의 이해를 돕는다. 강의는 오는 30일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모두 19회 차까지 계속된다.

'아시아를 새기다'는 아시아 문명 속 문자와 인장(印章)의 발전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인장과 염서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아시아를 이해하는 기회다.

'동아시아 정원문화'는 한·중·일 각국의 문화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야생화, 돌, 흙 등을 재료 삼아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풍경 정원'을 표현하고 담아내는 과정이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수강 신청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으며 각 교육별 15~30명씩 선착순으로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받는다. /최진화 기자

● 불에 타지 않고 ●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 합천 황매산 전망대 ■ 목포 노을공원 공연장 ■ 부여사비 창작지구 ■ 인제 갯골천 정비사업

데크의 세대 교체!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에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 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사람과 자연의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충청남도 서북구 망향로 903-6 (오목리9)